

#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 인지에 관한 연구

채은희<sup>1)</sup>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Proverbs' by Foreign Students

Eun-Hie Chae<sup>1)</sup>

### 요 약

이 연구는 TOPIK 급수 3급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활용한 '한국 속담' 인지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응답자 53명 중 해당 급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45명이 되었으며, 기본정보 외에 추가질문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연구결과, 한국어 학습 방법으로는 모국과 한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이 80.0%로 나타났으나 교육기관을 통한 속담 학습은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속담에 대한 높은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체계적 속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어렵게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의 TOPIK 급수 소지에 비해 한국 속담을 이해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속담 교육의 부재는 한국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학업 후 한국어 교수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은 만큼 속담 학습이 개인학습으로 그치기보다 한국어 교육과 같이 한국 속담 교육의 체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한국어 교재 속 속담, 외국인 유학생, TOPIK, 속담인지, 전자설문.

###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ternational students with over the TOPIK level 3 recognize Korean proverbs. Among the 53 students, 45 students had the qualification of the TOPIK level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80.0 percentages of those students have studied Korean languages in the language institutes in Korea or their homelands. Only 57.8 percentages of them have learned Korean proverbs. Despite the high interest of foreign students on Korean proverbs, education on their expectations has not been achieved. And they had difficulty recognizing the circumstantial expression of the Korean proverb. Their degree of understanding of Korean proverbs is lower, compared to their TOPIK levels. The absence of systemic education on Korean proverbs makes international studen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igurative expression of Korean proverbs. Sinc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want to become Korean language teachers after their studying, the education of proverbs needs to be conducted systematically rather than individually.

Keywords: Korean proverbs in Korean textbooks, International students, TOPIK, Recognition of Proverb, Electronic Survey.

Received (December 14, 2018), Review Result(January 23, 2019)

Accepted(February 25, 2019), Published(March 30, 2019)

<sup>1)</sup>Doctoral Graduate Student, 22212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422 Swohogwan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Korea.

E-mail: shshmam@naver.com

## 1. 서론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교훈이나 비유를 담은 짧은 구절입니다. 속담을 통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1]. 위의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제작한 한국어 교재 중 고급 단계에 해당하는 교재 속 ‘속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내용구이다.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교재 속에는 교훈이나 비유적 언어로서 한국 속담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언어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TOPIK II’에서도 변별력을 갖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한국 속담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담은 “간결한 형식 속에 은유로서 민중의 생활철학을 담은 사회적 소산”이라 했다[2]. 속담은 오래전부터 언어를 통해 구전되어 오며 민족의 삶과 정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이러한 한국 속담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시험에서도 한국어 이해만큼 중요한 의미해석의 도구로서 ‘한국 속담’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본 연구는 채은희와 김영순[5]의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103개 속담 자료를 토대로 구조화된 전자 설문지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 인지 정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갖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얼마만큼 한국 속담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 속담 교육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2. 인지언어학으로서의 ‘한국 속담’

### 2.1 인지언어학과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은유 이론

‘인지언어학’은 인지과학의 하나로 인지적 관점에 바탕을 둔 언어학이다[6]. 인지언어학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내용을 조직하고,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화를 가꾸는 과정에서 인지의 모든 영역에서 ‘언어’가 활용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언어가 어떤 작용을 거쳐 의미를 만들어 내고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유지·형성해 나가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곧 인지언어학인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의미에 초점을 둔 의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의미를 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으로 간주한다. 즉, 의미를 언어적 지식과 백과사전적 지식 속에 함축된 인지구조로 보는 것이다. 셋째, 언어구조와 의미는 인지 필터를 통해 이해하고 동기화된다. 넷째, 인지언어학은 ‘인간중심적 관점’으로 의미구조가 언어 외적 요소인 인지적, 문화적, 경험적 맥락에 의해 동기화됨이 특징적이다[6]. 이러한 인지언어학적 관점 안에는 인간 체험의 내용이 ‘언어’에 내재되어 있고, 세상의 지식이 언어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7].

Lakoff & Johnson[8]은 은유의 본질을 “어떤 종류의 사물을 다른 어떤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은유’는 비단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思考)와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인데, 이처럼 속담 의미의 은유적 표현은 단순한 언어이해를 넘어 우리의 정신작용(思考)의 해석적 근원이 되는 것이다.

## 2.2 교재를 활용한 한국 속담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자료로서의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한국 속담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속담에 대한 교육 방안이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영재[9]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 속에 등장하는 속담 내용과 TOPIK 시험문제에서 나타나는 속담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금하[10]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0%이상 차지했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 속 속담 분류와 함께 속담을 범주화하며 한국 속담과 중국 속담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최정혜[11]는 속담에 나타난 과장 표현을 통해 의미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결과에서 한국 속담 중 ‘속도’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한국인의 ‘빨리빨리문화’를 나타내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속담에 대한 교수자 입장에서의 교육 방안이 주를 이룸을 확인하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한 한국 속담 인지 정도를 파악함은 물론, 한국 속담 교육 상황과 관심 정도를 함께 파악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유학생들이 한국 속담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에 따른 연구참여자 선정은 한 대학의 다문화교육전공 유학생들을 통해 눈덩이 표집선정방법을 따랐다[12]. 눈덩이 표집선정(snowballing sampling) 방법은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참여자들 소개 받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출신 유학생으로부터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로인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자 설문은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자 설문에서 연구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이에 응답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모두 53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TOPIK II’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1급과 2급, 그리고 ‘해당 없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된 연구참여자 수는 모두 45명(84.9%)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Fig. 1] Research Participants Information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출신국가	우즈베키스탄 37명 (68.9%)	체류기간	1년 미만 11명 (24.4%)
	중국 4명 (7.5%)		1년이상 ~ 2년미만 12명 (26.7%)
	몽골 2명 (4.4%)		2년이상 ~ 3년미만 11명 (24.4%)
	베트남 2명 (4.4%)		3년이상 ~ 4년미만 5명 (11.1%)
	몽골 2명 (4.4%)		4년 이상 6명 (13.3%)
	키르기스스탄 1명 (2.2%)	TOPIK 급수	3급 6명 (13.3%)
	투르크메니스탄 1명 (2.2%)		4급 14명 (31.1%)
	인도네시아 1명 (2.2%)		5급 14명 (31.1%)
	카자흐스탄 1명 (2.2%)		6급 11명 (24.4%)
터키 1명 (2.2%)	유학 상황	전문학사 과정생 1명 (2.2%)	
성별		남자 10명 (22.2%)	학사 과정생 21명 (46.7%)
		여자 35명 (77.8%)	석사 과정생 7명 (15.6%)
나이		10대 2명 (4.4%)	박사 과정생 9명 (20.0%)
		20대 초반 21명 (46.7%)	교환학생 3명 (6.7%)
		20대 중반 9명 (20.0%)	일반 연수생 2명 (4.4%)
		20대 후반 9명 (20.0%)	고등학생 1명 (2.2%)
		30대 이상 4명 (8.9%)	졸업생 1명 (2.2%)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전자 설문에서 사용된 속담 내용은 채은희와 김영순[5]의 한국어 교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103개의 속담내용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개 대학, 9권의 교재를 기호화로 구분하고 교재 속에 나타난 속담을 분류·정리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Google[13]에서 제공하는 ‘Google 설문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설문지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전자 메일 또는 SNS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 기본 정보사항에는 출신국가, 성별, 나이, 한국 체류기간, TOPIK 급수, 현재 학습자 상황 등의 문항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는 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 속담 학습 방법, 그리고 한국 속담 관심 정도에 관해 묻는 질문을 따로 두었다. 다음으로 103개 속담 내용을 각각 나열하고 속담의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예’ 를, 처음 접하거나 들어보기는 했지만 뜻과 의미를 모르는 속담은 ‘아니요’ 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Google 설문지’ 에서 제공하는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질문’ 을 통해 설문지를 설계·제작하고 ‘응답’ 을 통해 각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원 그래프 또는 서식의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시켰다.

## 4. 연구결과

### 4.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와 '한국 속담' 학습 방법 및 관심도

유학생들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46.7%가 '모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33.3%)', '개인학습(교재 및 미디어 활용)(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과 한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으로 응답(2.2%)한 내용도 '기타'에서 나타났다. 모국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재나 미디어를 활용한 개인 학습도 17.8%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0명 중 2명 정도는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 내용 중 하나인 한국 속담 학습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속담 교육이 '한국어 수업 중 학습(57.8%)'이 가장 많았지만 '수업 외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22.2%)'과 '인터넷 및 교재활용(개인학습)(15.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기억나지 않음'도 4.4% 정도 나타났다. 이를 보더라도 한국 속담 교육이 한국어 수업 중 이루어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수업 외적으로 주변의 도움이나 인터넷 및 교재를 활용한 개인학습 또한 40% 가까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속담 관심 정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매우 관심이 많다.'와 '관심 있는 편이다'를 합하면 약 48.9%로 속담에 대한 관심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관심이 없는 편이다.'는 4.4%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에 비해 체계적인 속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 4.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 인지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 인지에 관한 설문 내용은 채은희와 김영순[5]의 교재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속담 103개를 질문 내용으로 삼았다. 질문은 속담의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예'를, 처음 접하거나 들어보기는 했지만 뜻과 의미를 모르는 속담은 '아니요'에 표시하도록 한 결과 내용이다. 총 103개의 속담 내용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속담 내용을 살펴보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하늘의 별 따기다, 낙동강 오리알이다, 남산골 산님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도토리 키 재기다 등 특히 인간 삶의 현상을 사물이나 행위, 동물 등에 비유한 표현을 매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유학생의 속담 인지 결과

[Fig. 2] The results of foreign students' recognition on Korean proverbs

순서	속 담	아니요 (%)	예 (%)
1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86.7	13.3
2	하늘의 별 따기다.	84.4	15.6
3	낙동강 오리알이다.	82.2	17.8
4	남산골 샌님이다.	82.2	17.8
5	빛 좋은 개살구다.	77.8	22.2
6	도토리 키 재기다.	75.6	24.4
7	밀저야 본전이다.	75.6	24.4
8	백문이 불여일견이다(百聞不如一見).	75.6	24.4
9	옥에도 티가 있다.	71.1	28.9
10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68.9	31.1
11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68.9	31.1
12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한다.	68.9	31.1
13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68.9	31.1
14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66.7	33.3
15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나라	66.7	33.3
16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66.7	33.3
17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64.4	35.6
18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이다.	64.4	35.6
19	취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64.4	35.6
20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64.4	35.6
21	새 발의 피다.	62.2	37.8
22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62.2	37.8
23	한 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 한다.	62.2	37.8
24	공든 탑이 무너지랴.	60.0	40.0
25	내 코가 석자다.	60.0	40.0
26	빈 수레가 요란하다.	60.0	40.0
27	울며 겨자 먹기다.	60.0	40.0
28	땅 짚고 헤엄치기다.	57.8	42.2
2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7.8	42.2
30	소귀에 경 읽기다.	55.6	44.4
31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55.6	44.4
32	가재는 게 편이다.	53.3	46.7
33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53.3	46.7
34	개천에서 용 난다.	53.3	46.7
35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53.3	46.7
36	수박 겉핥기다.	53.3	46.7
37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53.3	46.7
38	한강에 돌 던지기이다.	53.3	46.7
39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51.1	48.9
40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51.1	48.9
41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51.1	48.9
42	웃는 낯에 침 뱉으랴	51.1	48.9
43	짚신도 짚이 있다.	51.1	48.9

44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48.9	51.1
45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다.	48.9	51.1
46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 보내라	48.9	51.1
47	팔이 안으로 굽는다.	48.9	51.1
48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46.7	53.3
49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46.7	53.3
50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46.7	53.3
51	첫 술에 배부르랴	46.7	53.3
52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44.4	55.6
53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44.4	55.6
54	팽 먹고 알 먹기다.	42.2	57.8
55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42.2	57.8
56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42.2	57.8
57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42.2	57.8
58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40.0	60.0
59	팽 대신 닭	40.0	60.0
60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40.0	60.0
61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40.0	60.0
62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40.0	60.0
63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40.0	60.0
64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37.8	62.2
6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7.8	62.2
66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제 탓	37.8	62.2
67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33.3	66.7
68	길고 짧은 건 대화야 안다.	31.1	68.9
69	말이 씨가 된다.	31.1	68.9
70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31.1	68.9
71	식은 죽 먹기	31.1	68.9
72	누워서 침 뱉기다.	28.9	71.1
73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28.9	71.1
74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28.9	71.1
75	우물 안 개구리	28.9	71.1
76	친구 따라 강남 간다.	28.9	71.1
77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28.9	71.1
78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26.7	73.3
79	등잔 밑이 어둡다.	26.7	73.3
80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26.7	73.3
81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26.7	73.3
8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6.7	73.3
83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6.7	73.3
84	산 넘어 산이다.	24.4	75.6
85	싼 게 비지떡이다.	24.4	75.6
86	티끌 모아 태산이다.	24.4	75.6
87	제 눈의 안경	22.2	77.8
88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22.2	77.8
89	꼬리가 길면 밟힌다.	20.0	80.0
90	작은 고추가 맵다.	20.0	80.0
91	누워서 떡 먹기다.	17.8	82.2

92	병 주고 약 준다.	17.8	82.2
93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17.8	82.2
94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15.6	84.4
95	그림의 떡이다.	13.3	86.7
96	남의 떡이 커 보인다.	13.3	86.7
97	가는 날이 장날이다.	11.1	89.9
98	갈수록 태산이다.	11.1	88.9
99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11.1	88.9
100	시작이 반이다.	11.1	88.9
101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8.9	91.1
102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8.9	91.1
103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6.7	93.3

이 중 ‘남산골 샌님이다’는 한국인인 본 연구자도 이해하기 힘든 속담 내용 중 하나였다. 남산골 샌님은 ‘가난하지만 영리한 사람’ [14]으로 풀이된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 43개 (‘아니요’ 50%이상)는 전체 속담 103개 중 41.7%에 해당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힘든 속담보다 잘 이해하는 속담의 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TOPIK 급수 수준이 중·고급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임을 감안한다면 그 비율은 참여자의 수준보다 속담을 인지하는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먼저 채은희와 김영순[5]의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재 속 속담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고, TOPIK 급수 3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속담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 설문지인 ‘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얻은 연구 결과는 현재의 한국 속담 교육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속담에 대한 높은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체계적 속담 교육의 부재이다. 80.0%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이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짐을 나타낸 반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속담 학습은 57.8%에 불과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속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업 중에 한국 속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나타난 결과이다. 유학생들 종료 후 희망 직종으로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15]처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 속담에 대한 의미해와 설명은 한국어 교수자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채은희와 김영순, 박미숙[16]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속담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속담 학습은 주로 TOPIK시험 대비 목적에 집중한 개인학습이 이루어졌을 뿐, 시험 이후에는 잘 활용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체계적 속담 교육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어렵게 인식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각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현상을 사물이나 형상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의 속담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한국 속담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이나 한국 속담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교육자들로부터 속담의 의미해석이 가능함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에 비해 한국 속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나타난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보유 TOPIK 급수 대비, 한국 속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TOPIK시험 급수 중·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3급에서 6급까지의 연구참여자는 4급과 5급이 각각 31.1%로 가장 많았고, 6급이 24.4%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3급은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체 속담 건수 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이 41.7%(43개)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연구참여자의 TOPIK 급수 수준보다 한국 속담 인지 수준이 높지 않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 속담 학습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속담 교육이 부재했던 과정이 모국의 교육기관에서였는지, 아니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였는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속담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의도가 노출되며 그에 따른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학업 종료 후 희망 직종으로 ‘교육 서비스업’이 나타난 결과[15]를 감안한다면, 한국 속담에 대한 유학생의 관심은 연구에 따른 반응효과보다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속담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충족되지 못하는 체계적인 속담 교육 시스템의 부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1]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ngu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ent's Book 5A, MoonJin Media (2012).
- [2] Y. D. Kim. Grand Dictionary of Korean Folk Culture (1). Publication of books: HanSol. (2004), pp.1049.
- [3] S. J. Choi, The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proverbs. Folklore Volkskunde. (1990), Vol.1, No.2, pp.157-180.
- [4] <http://www.topik.go.kr/>, Jen 09 (2018).
- [5] E. H. Chae and Y. S. Kim,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Proverbs Present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oreig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Vol.18, No.21, pp.851-867.
- [6] J. R. Lim,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 of semantic relations, Seoul: Korean Culture Corporaion, (2017).

- [7] D. H. Kim, A Study on the Meaning Construction of Metaphorical Compounds Based on Conceptual Blending.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2013), Vol.64, No.-, pp.1-24.
- [8] Lakoff, G & Johnson, M, *Metaphor We Live By.* ,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9] Y. J. Kim. Study on the Instructions of Proverbs for the Chinese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2002), KyungHee University dissertation for a master's degree.
- [10] K. H. Kim, A Study of Korean Proverbs for the Chinese Students. (2009), Vol.-, No.20, pp.27-55.
- [11] J. H. Choi, A Study on the exaggerated expression in Korean sayings - Focused on the Korean sayings' meaning. (2014), Vol.11, No.1, pp.195-216.
- [12]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2009), San Francisco: Jossey-Bass.
- [13] <https://docs.google.com/>, Jen 09 (2018).
- [14] D. H. Kim, A dictionary of Korean proverbs. Hanul Academy. (2009).
- [15] <http://www.kosis.kr/index/>, Jen 09 (2018).
- [16] E. H. Chae, Y. S. Kim and M. S. Park, A Study of Foreig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with 'Korean Proverb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Vol.18, No.2, pp.561-584.